

‘전주시 우수 청년정책’ 전국 주목

‘청춘★별채’ 전국 지자체 기본사회 우수사례 주거 부문 선정… 울산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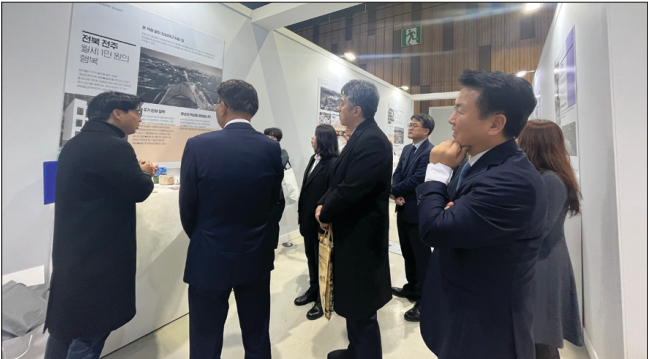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를 비롯한 전주시 청년정책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개됐다.

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등 청년정책을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 엑스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된 것은 ‘청춘★별채’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한 기본사회 관련 26개 지자체 우수 사례 중 주거 부문에 선정돼 이뤄졌다.

시는 엑스포에서 ‘전주, 청년의 환찬 비상, 별이 되어 날다’라는 포어 아래 청년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함께 사는 삶, 모두가 빛나는 도시 전주’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시는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청년의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



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펼쳐진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등 청년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는 전주시 대표 청년주거정책인 ‘청춘★별채’를 비롯해 청년정책 전반을 여러 기념 굿즈와 함께 선보여 수많은 자치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홍보부스에는 경

기도와 경북 영주, 충남 부여 등 여러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직접 찾아와 ‘청춘★별채’ 운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요청하며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선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 등 주요 내빈을 대상으로 청춘별채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등 발 빠른 현장 홍보 행정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본사회’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주거·복지·돌봄·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는 사회를 의미하며, 두터운 사회 안전망 제공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정책 방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여러 지역과 나란히 청년의 주거기본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엑스포 참가를 통해 전주시의 청년정책이 우수 사례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청년들이 전주의 품에 머물며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청년이 모이고 머무르며, 함께 웃는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폐자원 순환 프로젝트 기획전시

전주시새활용센터, 내년 2월 20일까지 ‘귀결된 모퉁이’ 진행

전주시새활용센터는 24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새활용센터 다시봄 3층 기획전시장에서 ‘폐자원 순환 프로젝트 ‘귀결된 모퉁이’”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2025 다시봄 세 번째 기획초대전’으로 진행되며, 버려진 나무와 폐탄소섬유를 예술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순환과 재생의 가치를 예술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의 제목이자 핵심 개념인 ‘모퉁이’는 공간의 경계를 이루는 동시에, 그 자체로 또 다른 시작점이다. 즉, 모퉁이는 사라진 것과 새롭게 형성된 것이 교차하는 장소인 것이다.

‘귀결된 모퉁이’는 끝에 다다른 모퉁이에서 마주한 버려진 자원과 폐산업 소재를 예술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입사이클링한 가구와 탄소 섬유 작품으로 귀결되는 새로운 결말을 제시하며, 이는 ‘환경된 자원’의 무분별한 소비를 멈추고 예술로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작가들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청년시각예술가 그룹 제로디렉션과 노마드가 협업한 이번 전시는 총 15점(입사이를 가구 9점, 탄소 섬유 작품 6점)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참여한 청년예술가들은 버려진 가구를 구조하고 재조립한 입사이를 가구와 신소재 탄소섬유를 활용한 조형 작품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확장한다.

/권희성 기자

송천동 에코시티 상가 중심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집중단속

전주시, 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 폐기물 배출 준수 당부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송천동 에코시티 상가를 중심으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몰 후 배출제’에 따라 시민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

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1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가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는 일몰 후 배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으나 쓰레기가 상시 배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 인식 향상을

을 위해 인구 규모가 많고 상점의 이용량이 많은 에코시티 상가 일원을 우선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3개조 6명과 구청 3개조 6명, 주민센터 2개조 4명 등 16명의 홍보반을 편성해 이달 중 홍보전단지를 배부했다.

또한 많은 상점과 사무실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인 에코시티 상가 내 3개의 스티로폼 수거함에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6명의 직

원이 상주하며 일몰 후 배출제를 위반하는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는 구청에서 일몰 후 배출제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일몰 후 배출제 집중단속 구역을 전북대 구정문과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전주한옥마을 일원 등 상점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도시재생 10주년 ‘도시·사회·건축 특강’

전주시 도시재생 10주년을 맞아 승효상 前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도시·사회·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도시재생 10주년을 맞아 도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특별한 강연인 ‘2025 도시·사회·건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포럼과 공모전 시상식 기간에 맞춰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도시계획과 사회정책, 건축철학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전주를 찾는다.



먼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다울마당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강연에는 경인원 도시와커뮤니티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Re·city, 매력적인 도시 - 창조적 파괴를 통해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도시의 매력을 구성하는 요소와 재생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오전 10시,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다울마당에서 은민수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학술연구교수가 ‘새로운 사회계약, 기본사

회의 철학과 정책’을 주제로 지역 돌봄과 소득 보장 등 도시 안의 사회제도와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특히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전주 시청 강당에서 열리는 마지막 강연에는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인 승효상 이로재(履露齋) 대표가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전주시민과 만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이동노동자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추운 날씨 속 야외노동에 나서야 하는 택배기사를 직접 찾아가 건강과 안전을 응원했다.

시는 지난 21일 덕진구 여의동 소재 쿠광 전주1캠프 물류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겨울철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운동용 전주 부시장은 이날 쿠광 물류센터의 물류 분류 현장을 순회하며 택배노동자를 격려하고, 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방한 장갑과 귀마개 등 겨울철 안전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시는 방한용품 착용과 작업 전·후 휴식, 한파 대비 차량 점검 등 현장 안전 수칙을 홍보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동노동자 안전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쉼터 설치·운영 △안전교육 및 상담 △간식 지원 행사 등 다양한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총 6회의 안전 노동 캠페인을 통해 1800명의 노동자에게 안전 물품을 지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21일 덕진구 여의동 소재 쿠광 전주1캠프 물류센터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